

비대면 시험, 부정행위 없이 지나갈까?

부정행위 대책 1학기과 동일해 징계 세부사항도 마련해야

지난 16일, 대학본부는 제6차 학생대표 정기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통해 “부정행위자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징계에 대해서는 지난 학기와 같은 대응을 내놨다.

이번 학기 중간고사는 대면 시험 및 비대면 시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대면 시험은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비대면 시험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학기 역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간·기말고사가 일부 대면 시험을 제외하고 비대면으로 시행됐다.

부정행위 예방과 관련해 대학본부는 1학기과 동일하게 서약서 등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험 원칙 설명 및 부정행위 경고 공문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조윤철(학사운영팀) 팀장은 “지난 학기와 동일하게 교감사에게 시험 전에 서약서를 제출하거나 시험 방식을 대체하는 등의 방안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혜경 교무처장은 “교감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시험 감독 매뉴얼을 e-class에 공지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엄격한 평가를 위해 숙고하고 있으며, 부정행위 방지와 관련한 학생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1학기 학사일정이 마무리 된 후, 학내 익명 커뮤니티에는 본교의 부정행위 예방 대책에 불만족했다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학생들은 ‘우리학교 시험방식이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다’며 대학본부의 시험 방식 권고사항을 지적했다.

본지 556호에서 실시한 1학기 온라인 중간고사 만족도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설문 응답한 전체 학생 중 45.7%가 시험에 공정성 문제가 있어 불만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55.2%의 학생이 응답한 바 있다.

예방책 마련 외에도, 본교는 부정행위의 기준과 항목에 대한 세부사항 정립이 필요한 상태다. 『학생상벌에 대한 시행세칙』 제 8조 1항에는 학업과 관련한 부정행위자를 심의의결에 의해 징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징계까지의 과정은 나와 있지만, 징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해져 있지 않다. 안상욱(학생장학팀) 팀장은 “부정행위의 기준과 부정행위 처벌 항목이 자세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학기에 부정행위를 목격한 사례가 있었지만, 본교의 처벌받은 학생은 단 한명도 없었다. 본지의 중간고사 만족도 설문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교수 중 27.3%가 부정행위를 한 학생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부정행위 종류로는 답안 베끼, 두 명 이상이 함께 시험에 응시함 등이 있었다.

총학생회는 시험기간에 학내 커뮤니티를 통해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신고를 받기 위해 공지를 게시한다. 안 팀장은 “지난 1학기 당시 대학본부에 부정행위 의심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신고하지 않아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신고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 selbee01@gmail.com



재개발에 끼인 등골길 재개발로 인해 철거 가림막이 설치된 정문 진입로의 모습이다. 사진의 좌측부터 건물철거가 진행되며, 해당 위치에는 보행로가 설치될 예정이다. 정도영(시설지원팀) 차장은 “철거 일정이 유동적이라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나, 11월 중으로 보행로를 설치할 것”이라며 “보행로가 설치된 후 우측관 중문 길이 폐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성훈 기자 csh8947@hanmail.net

2020학년도 1차 대의원총회 온라인으로 시행돼

지난 29일, 2020학년도 1차 대의원총회(이하 총회)가 온라인으로 시행됐다. 이번 총회는 ▲2020학년도 하반기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소속 학생회 예산 인준 ▲2020학년도 상반기 미집행 중운위 소속 학생회 예산 인준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자리에는 중운위 소속 학생대표 9명 및 대의원 총 69명 중 64명이 참여했다. 이번 총회는 Webex를 통해 진행됐으며, 안건에 대한 투표는 카카오톡으로 진행됐다.

학생회칙 제23조(소집)에 의거해 총회는 매년 상반기 3월과 5월, 하반기 9월과 11월에 소집한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상반기 총회가 개최되지 않아 상반기 학생회비 예산 인준이 집행되지 않았다.

장예준(사회과학 4) 총대의장은 “1학기 학생회비를 사용한 단위는 사비로 결제한 뒤 이번 총회에서 통과한 내역에 한해 선지출로 인정해 환급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총회에서 선지출 내역을 인준 받은 중운위는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디자인대학 학생회다.

이번 총회에서는 대의원 오리엔테이션이 함께 진행됐다. 오리엔테이션은 대의원에 대해 그들의 업무 및 규정과 대의원의회의 및 상임위원회를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장 의장은 “대의원이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하는지 알려주기 위해 시행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질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장 의장은 “대의원에게 역할과 의무를 더 적극적으로 알려 책임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을 대비하여 총회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면에 계속

이슬비 기자 selbee01@gmail.com

2021학년도 적성고사 및 미술·무용실기고사 대면 진행

오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적성·실기고사가 대면으로 실시된다. 이번 고사는 ▲적성고사 5,335명 ▲무용실기고사 147명 ▲미술실기고사 1,594명으로 총 7,076명의 수험생이 응시한다.

고사장의 경우 적성고사는 한성여자중학교, 한성여자고등학교, 낙산관, 상상관, 탐구관에서, 무용실기고사는 낙산관에서, 미술실기고사는 상상관, 탐구관, 낙산관에서 시행된다. 고사장 위치는 작년과 동일하다.

적성고사는 고사실 당 20명에서 30명의 학생들이 들어갈 예정이며, 자리에 앉아서 시험을 푸는 방식이다. 무용실기고사는 1명, 미술실기고사는 16명 내외가 고사실에 들어가 실기를 치를 예정이다.

본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는 ▲수험생의 교내 입소 차단 ▲수험생 및 감독관 입소 동선 분리 ▲수험생 개인별 자가 문진표 작성 ▲수험생 체온 측정 및 임시 보호소 설치 ▲고사실 내 수험생 거리 간격 유지 및 벨트차단봉 설치 ▲유증상자 및 고위험군 격리고사장 운영 ▲체온이 3회 연속 38도 이상 측정된 수험생 귀가조치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고사 응시 불가 등이 있다.

고사 당일에는 학교로 통하는 모든 길목에서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동반자의 유입을 차단해 외부인의 출입을 막을 예정이다.

수험생 및 감독관의 입소 동선을 분리함으로써 상호 감염 위험을 최소화한다. 수험생은 정문, 중문, 한성여자중학교, 한성여자고등학교로 출입하지만, 감독관 및 관계자는

차량 이동시 중문, 상상관 주차장, 잉글리쉬 라운지, DLC 순으로, 도보 이동시 중문, 우촌관 주차장, 미래관 지하 1층, DLC로 이동한다.

교내로 들어온 모든 수험생은 QR코드를 통해 자가 문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자가 문진표는 자가격리 대상자 여부, 해열제 등 약물 복용 여부, 코로나19 관련 증상, 14일 내 집단감염 지역 및 시설 방문 이력 등으로 구성된다. 수험생은 고사장 입장 시 작성된 문진표를 수험표와 함께 방역 요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문진표에 최근 해외 방문 여부나 발열 등의 이상징후를 가지고 있다고 답한 학생은 재확인 대상으로 분류돼, 체온을 재측정하게 된다.

고사장 내부에는 수험생이 두 줄로 거리유지를 할 수 있도록 벨트차단봉이 설치된다.

책상 간격도 넓혀 수험생 간의 거리를 1.5m 이상 유지한다.

입소 및 퇴소 인원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적성고사 시간도 변경된다. 1교시는 10시~11시로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2교시는 기존 14시~15시에서 15시~16시로 변경돼, 늘어난 여유시간 동안 교내 소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증상자 격리고사장과 고위험군 격리고사장이 운영된다. 수험생의 체온이 3회 연속으로 37.5도 이상, 38도 미만을 기록했을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되며, 해당 수험생은 유증상자 격리고사장에서 고사를 응시한다. 해당 격리고사장은 재실 수험생 20인 이내로 운영된다.

고위험군은 체온이 3회 연속으로 37.5도 이상, 38도 미만으로 나온 학생 중 추가 증상이

나타난 경우다. 고위험군 격리고사장은 1인 1실로 운영된다.

수험생의 체온이 3회 연속 38도 이상으로 측정되거나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될 경우 고사 응시가 불가능하다. 해당 수험생은 고사에 미응시한 것으로 간주해 탈락 처리된다.

본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과의 연계를 통해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상태인 수험생을 차단할 예정이다. 출입 통제 과정에서 대교협과 질병청이 제공한 정보와 수험표를 대조해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를 식별한다.

전민우(임학관리팀) 차장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학교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수 기자 jseo53493@gmail.com

제6차 학생대표 정기 간담회 진행, 대학본부 향후 일정 및 대책 발표

지난 16일,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제6차 학생대표 정기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열었다. 이창원 총장을 비롯한 대학본부 관계자 5명과 박민수(컴공 4) 총학생회장 등 학생대표 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블렌디드 수업 연장 및 대면 강의 진행 여부 ▲기말고사 비대면 시행 여부 ▲등록금, 실습·실기비 환불 ▲야간 및 주말 방역 대책 등이었다.

9주차까지 제한적 대면 수업 진행, 이후 수업은 논의 예정

학생대표는 중간고사 이후 블렌디드 강의가 아닌 제한적 대면 수업 진행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 1.5단계이기 때문에 전면 블렌디드 강의 진행 시 코로나19의 감염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본부는 9주차까지 제한적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이후에 진행되는 수업은 오는 20일 진행되는 교무회의에서 블렌디드 강의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답을 내놨다. 조혜경 교무처장은 “10주차부터는 실습·실기 과목에 한해 대면강의를 지향한다”며, “제한적 대면강의의 신청 및 심의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9주차 이후 수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블렌디드 수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추후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말고사는 대면으로 시행

학생대표는 기말고사를 비대면으로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지난 학기 시험기간에 제한적 대면 시험을 허용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우려의 이야기가 나왔다”며 대면 시험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학생대표는 지난학기 기말고사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1학기 기말고사는 14주차에서 17주차

까지 4주간 진행됐다. 본부는 아직까지 기말고사 진행 방식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어 향후 논의를 통해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윤철(학사운영팀) 팀장은 “기본 방침은 대면 시험을 진행하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방침은 없다”고 답했다. 기말고사 기간에 대해서는 “14주차부터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부담될 수 있지만,



17주차까지 실시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 14주차 중에 시험을 시작해 16주차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등록금, 실습·실습비는 논의 불가해

학생대표는 현재 등록금 및 실습·실기비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학생 사이에서 등록금 환불 여부가 계속 언급되는 상황”이라며 답변을 요구했다.

대학본부는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창원 총장은 “소송 집행 과정 중에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은 행정적·사법적으로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천근 학생처장은 “지난학기 대학본부가 지급한 한성희망장학금 및 코로나특별장학금은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급한 것”이라며 “2학기도 지급하는 것은 재정상 부담스럽지만 가능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교 확진자 발생, 야간 및 주말 방역 확대

지난 15일 본교 행정대학원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학생은 9월 28일 대학원 종합시험을 치르기 위해 학교에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처장은 “학교 방문 후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2주가 넘어간 상황이라 안심하고 있다”며, “확진자 신고와 학사 처리 과정이 빨랐지만, 본교는 엄격한 방역 속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본부는 야간 및 주말 방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본교에는 주간 700명 내외, 야간 100명 내외의 학생들이 등교하지만, 재정 상 야간에는 건물 통제가 불가한 상황이다. 최 처장은 “야간을 포함해 토요일에도 방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이 총장은 “현재 코로나 사태를 엄중히 의식하고 일관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처장과 논의를 통해 수업의 질과 안전 둘 다 갖춘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번 학년도의 유종의 미를 위해서는 학생대표와 더불어 대학본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 selbee01@gmail.com

대의원총회, 중운위 2020학년도 하반기 예산 인준

이번 대의원총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의 1학기 선지출 금액 산정 및 2학기 예산 인준을 마무리했다. 본 회의에서 가결된 모든 안건은 재적 대의원 중 과반의 찬성으로 승인됐다. 이날 2020학년도 하반기 예산으로 총 20,963,320원이 인준됐다.

총학생회 ‘한결’(이하 총학)은 1학기 선지출 금액 및 2학기 예산으로 총 3,242,481원이 책정됐다. 총학은 지난 1학기 선지출 금액 772,481원을 인준

받았으며, 세부 항목으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 등록금 반환운동 활동비 및 가입비가 포함됐다. 2학기 예산안은 운영비, 전대넷 활동비로 총 2,470,000원이 인준됐다.

총대의원회 ‘청량’(이하 총대)은 2학기 총 2,986,920원을 예산으로 인준 받았다. 해당 예산안은 대의원총회 운영, 상임위원 감사 OT 운영, 우수 대의원 상봉, 총대 감사 상임위원 선출, 총선거, 사업예비비 및 운영비로 구성됐다. 감사위원회

예산은 총 150,000원을 인준 받았다. 학생복지위원회 ‘도란’(이하 학복위)은 1학기 선지출 금액 및 2학기 예산으로 총 2,321,528원을 승인 받았다. 학복위 1학기 선지출 금액은 물품 대여 사업, 5월·6월 키워드 이벤트, 온라인 간식 사업으로 총 242,228원을 인준 받았다. 2학기 예산은 9월·중간고사·11월·12월 키워드 이벤트, 마스크 사업, 플러스 친구 홍보, 사업예비비 및 운영비를 포함해 총 2,079,300원이 인준됐다.

동아리연합회 ‘커넥트’의 2학기 예산은 유튜브 구독 이벤트, 감사 자료집 배포, 동아리 비품 대여 사업, 미화 사업, 사업예비비 및 운영비로 총 2,045,000원이 책정됐다.

인문예술대학 학생회 ‘한빛’은 프린트 대여사업, 시험기간 간식 사업, 문화생활 장려사업, 복지 사업, 행사 및 일정 공지 사업, 사업예비비 및 운영비를 포함해 총 2,603,490원의 2학기 예산을 인준 받았다.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두드림’은

2학기 예산으로 총 2,709,360원을 승인받았다. 온라인 이벤트, 카카오톡 채널, 간식 사업 등 온라인 행사 운영비와 학기 중 상주 사업, 단대 선거관리위원회 등 오프라인 행사 운영비, 사업예비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예산이다.

디자인대학 학생회 ‘스케치’는 1학기 선지출 금액 및 2학기 예산으로 총 2,989,250원을 인준 받았다. 1학기 선지출 금액은 지난 학기 시행한 이벤트 운영비로 총 250,000원을 승인

받았다. 2학기 예산은 무료 컬러 프린트, 중간고사·기말고사 간식 배부 사업, 온라인 디자인 페어, 학기 중 상주 사업, 선거 사업, 사업예비비 및 운영비가 포함된 총 2,689,250원이 인준됐다.

IT공과대학 학생회 ‘동행’은 이벤트 사업, 11월 총선거, 간식 사업, 복지 사업, 사업예비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2학기 예산으로 총 3,230,000원을 인준 받았다.

이슬비 기자 selbee01@gmail.com

상상력교양대학 표현 능력 상담 참가자 모집

상상력교양대학에서 오는 12월 18일까지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표현 능력 상담을 진행한다. 표현 능력 상담은 다양한 유형의 글과 표현에 대한 학생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은 희망 일시 24시간 이전에 글쓰기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대면 상담 혹은 비대면 상담을 선택할 수 있다.

상담은 학생의 글에 대한 사고와 표현과정 소속 학술연구원의 첨삭과 총평으로 이뤄진다. 참가자는 칼럼, 기사문, 비평문, 제안서 등 총 12가지 유형의 글을 상담 받을 수

있다. 단, 교내 공모전, 졸업 논문, 사고와 표현 과목의 과제는 상담을 받을 수 없으며, 동일한 글은 최대 2번 참석이 가능하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급수에 따라 상담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을 참여한 학생은 상담 1회당 비교과 포인트 10pt가 지급되며, 내국인재 학생은 최대 30pt, 외국인 유학생은 최대 50pt를 획득할 수 있다.

권정현(사고와표현과정) 책임 연구원은 “상담을 통해 글쓰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송정원 기자 moom625@hansung.ac.kr

총장과의 점심식사 성황리에 마무리

지난 14·15일, 상상관 9층 대회의실에서 총장과의 점심 식사가 진행됐다. 14일에는 신입생, 15일에는 2·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행사가 이뤄졌다. 본 행사는 본교 재학생들이 총장과 식사를 하며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총장과의 점심식은 매 학기 2회씩 진행되며 참여 학생에게는 비교과 포인트 10pt 및 기념품이 지급된다. 이번 자리에는 이창원 총장과 학생처장 및 대학본부 관계자 8명과 사전에 선발된 학생 8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자기소개 ▲식사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수렴

신혜미 기자 hyerm126@hansung.ac.kr

재학생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실시

오는 11월 30일까지 본교 건강관리실 주관으로 재학생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검진대상자는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재학생이며, 휴학생은 검진을 받을 수 없다.

검진을 희망하는 학생은 하나로의료재단에 미리 전화해 날짜를 예약한 후, 검진 당일 종로센터 혹은 강남센터에 내원하면 된다. 기관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오전 검진 시 전날 자정부터, 오후 검진 시 당일 아침부터 금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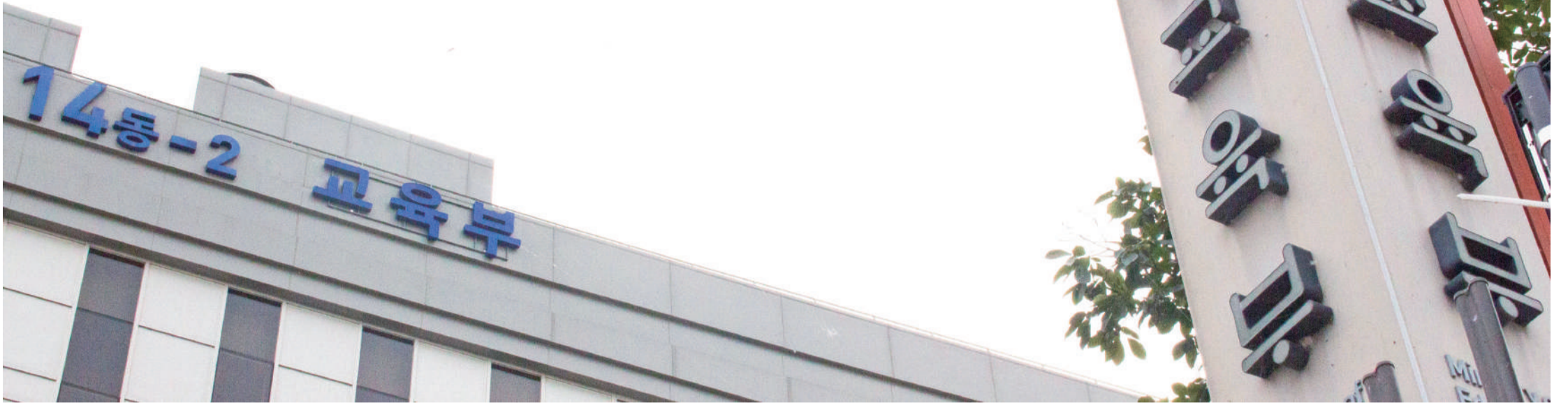
검진은 약 30분간 ▲소변검사 ▲심장질환 ▲혈액검사 ▲A형 간염

▲B형 간염 등 총 16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검진 결과는 검진 후 2~4주 사이에 피검진자에게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전달된다. 만약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의사와의 개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권후관(건강관리실) 차장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집에만 있는 학생이 늘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며 “건강검진을 통해 많은 학생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길 바란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박현규 기자 pizzdragonheart@hotmail.com

사학법령 제·개정안, 사학개혁의 신호탄 되나



지난 9월 25일 「사립학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이하 특례규칙」 개정안,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정안이 공포됐다.

3개 법령 제·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와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사학 부정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당 추진방안에 5개 분야·26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다. 5개 분야는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 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 혁신이다.

이번에 시행된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 등 3가지 과제는 책무성 강화 분야에 해당한다.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개방이사 선임 불가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의 핵심은 학교 이해관계자가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 제7조2의 5항에서는 조건을 달아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해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각 호에서 말하는 조건은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외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등으로 이사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물이 개방이사로 선임되지 못하게 했다.

해당 조항의 개정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대학의 개방이사 운영에서 비롯됐다. 개방이사는 학교법인 이사 중 4분의 1 이상을 외부인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로 사학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개정 전 시행령은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을 법인이 정하는 정관에 따르도록 했다. 정관은 법인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규칙으로 법인이 임의적으로 정관의 내용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개방이사의 자격을 법인이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대다수의 사학법인은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던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242개의 사학법인 중 이해관계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한

법인은 106개로, 전체 43.8%에 달했다. 개방이사제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해 교육부가 해당 조항을 개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개방이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해당 조항 개정은 개방이사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건을 더한 것"이라며 "이전보다 개방이사제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임 연구원은 "현재 개방이사 제도는 개방이사의 추천과정에서 재단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방이사의 추천권을 대학평의원회에 넘겨가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제14조에 따르면 개방이사의 추천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에서 이뤄지며, 추천위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절반과 정관에서 정하는 자로 구성된다. 추천위에 재단 측 인사가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봤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3개월에서 1년으로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은 시행령 제8조3을 개정해,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해당 조항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이 짧아 이사회 의사 결정 적정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아쉬다는 반응이다. 임 연구원은 "학교 운영과 교내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학생들이 파악하기에 3개월의 공개기간은 충분하지 않다"며 "학생들이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선 몇 년 전의 자료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기간을 1년이 아닌 최소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박거용(전국교수노동조합) 학문정책위원장은 "학교운영에 관심 있는 구성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회의록의 공개기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 의무화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는 임원이 친족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임원 간 친족관계가 공개내역에 빠져있었던 기존의 「교육부 고시 2016-92호」를 폐기하고 새로운 고시를 제정했다. 새로운 고시 2조는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

해야 한다. 1. 성명, 2. 연령, 3. 임기, 4. 현직 및 주요경력 5.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해당 여부'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사학법 제21조제2항은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의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에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인은 이사가 해당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해당 고시는 사학 비리의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족벌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지난 6월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4년제 사립대 및 사립전문대학 법인 임원의 친인척 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163개 대학에 근무하는 사람 중 설립자·이사장 등의 친인척은 535명에 달한다. 이 중 교수가 147명(27.5%)으로 가장 많고, 이사가 112명(20.9%), 직원이 100명(18.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임 연구원은 "법적으로 친족이사의 비율을 4분의 1로 제한하는 상황에서 이사 간의 친족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공개범위를 총장, 법인사무국, 교수, 직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사학 회계 투명성 강화 부문에서 회계부정 임원승인 취소기준 강화, 교비회계 세입대상 기부금 확대 등을 시행했다.

임원 회계부정 처벌 기준 확대

회계부정 임원승인 취소기준 강화는 낮은 액수의 배임·횡령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낮추는 것이다. 교육부는 시행령 제9조2 1항의 2호와 3호의 내용을 개정했다. 기존의 조항에 따르면 시정요구 없는 임원 승인 취소는 임원이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30% 이상에 대해 회계부정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거나,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야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은 수익용기본재산의 10% 이상에 대해 회계부정하거나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해 1천만 원 이상 횡령·배임할 경우 시정요구 없이 임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조항의 개정은 사립대학에 만연한 회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이뤄진 교육부의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총 441건 중 전체 52.83%에 해당되는 233건이 회계 등 금전 문제였다.

전문가는 해당 조항 개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임 연구원은 "1천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임원들이 스스로 회계투명성을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과 법인 책무성 강화를 위해 이번 사학법령 제·개정안 공포돼

전반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많으나 미흡한 점도 여전히 있어

사학개혁을 위해서는 국회 내에서의 논의와 사립학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해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과거에는 임원이 회계부정을 했을 경우 경고조치와 시정명령뿐이었다. 이번 개정은 1천만 원이라는 조건에 해당 되면 시정명령 없이 승인 취소가 되는 원 스트라이크아웃 제도가 되기 때문에 사학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반기부금, 교비회계로만 세입되도록 조정 교비회계 세입대상 기부금 확대는 기부금이 가급적 교육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부는 특례규칙의 별표 1과 별표 3을 개정해 일반기부금도 교비회계로만 세입될 수 있게 조정했다. 개정 전에는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기부금의 경우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모두에 세입할 수 있었다.

해당 개정안은 사학법인의 법인전입금을 부풀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지난 2012년, 숙명여자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숙명학원은 718억 원의 기부금을 재단 계좌로 이체했다가 학교에 다시 임금을 하는 방식으로 기부금을 법인전입금으로 위장했다. 같은 해 고려대학교를 운영하는 고려중앙학원이 현대자동차가 기부한 107억 원을 법인전입금으로 위장시켰다는 의혹도 나왔다.

박 위원장은 "과거에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이 대부분 법인회계로 들어갔다"며 "해당 개정안으로 재단이 기부금을 이용해 법인전입금을 부풀리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 연구원은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과 같은 사학개혁 법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국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법령, 규칙, 고시 등의 제·개정을 통해 사학개혁과제를 수행한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사학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학법인도 공익법인처럼 친인척의 비율을 5분의 1로 낮추거나, 이사장의 친인척이 총장이 될 수 없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개선점을 시사했다.

박 위원장은 "2013년 헌법재판소는 학교법인의 정체성은 설립자로부터 이어지는 이사의 인적 연속성보다는 설립 목적이 화체된 정관을 통해 유지·계승된다고 판결했다. 사립학교가 개인의 사유재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학개혁을 위해서는 사립학교가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성훈 기자 csh8947@hanmail.net

동양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 오리엔탈리즘

〈편집자주〉

최근 영화 '물란'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영화 '물란'은 1998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물란'을 실사화한 작품이다. 차별과 고난을 딛고 일어서 승리하는 성장 스토리였던 애니메이션과 달리 서양의 시각으로 바라본 동양 무협 영화라는 것이 주된 논란이다. 부정확한 역사 고증, 동양에 대한 제작사의 이해 부족도 지적됐다. '물란'의 논란과 함께 단어 하나가 주목을 받고 있으니 바로 오리엔탈리즘이다.

주진술 기자 twoxo@naver.com



출처: 월트 디즈니

기존의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에 대한 연구 전반을 지칭하는 단어였다. 바이런은 1812년 출판한 장편 시 '차일드 해럴드의 순례'에서 이와 같은 뜻으로 오리엔탈리즘을 사용했다. 오리엔탈리즘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뜻으로 바뀐 것은 1978년 에드워드 사이드의 저서 '오리엔탈리즘'을 통해 이뤄졌다. 그는 책에서 '서양이 동양을 왜곡하고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오리엔탈리즘을 정의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대변할 수 없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 대변되어야 한다." 인류의 평등을 외쳤던 독일의 사회 운동가 마르크스가 동양인을 표현한 말이다. 19세기, 마르크스 외에 많은 서양 학자는 동양을 미개한 존재로 표현했다. 학자의 생각은 곧 대중에게 퍼졌다. 에드워드 사이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시기에 서양에서 만들어진 동양에 대한 시각이었다.

서양의 우월감은 동양의 미개함으로부터 나온다

뿌리 깊은 오해

에드워드 사이드는 근대에 만들어진 서양의 시각에 집중했지만, 서양이 동양을 왜곡한 역사는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양과 서양이 처음 만난 것은 기원전 5세기 경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이다. 이때 처음 '오리엔트'라는 단어가 생겼다. '해가 뜨는 방향'이라는 뜻의 오리엔트는 서양이 처음으로 동쪽이라고 인식했던 곳인 서남아시아, 오늘날의 중동 지역을 가리켰다. 당시 이 지역은 페르시아가 장악하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동양 지역과는 거리가 멀었다.



프랑스와 부세 (중국식 정원), 1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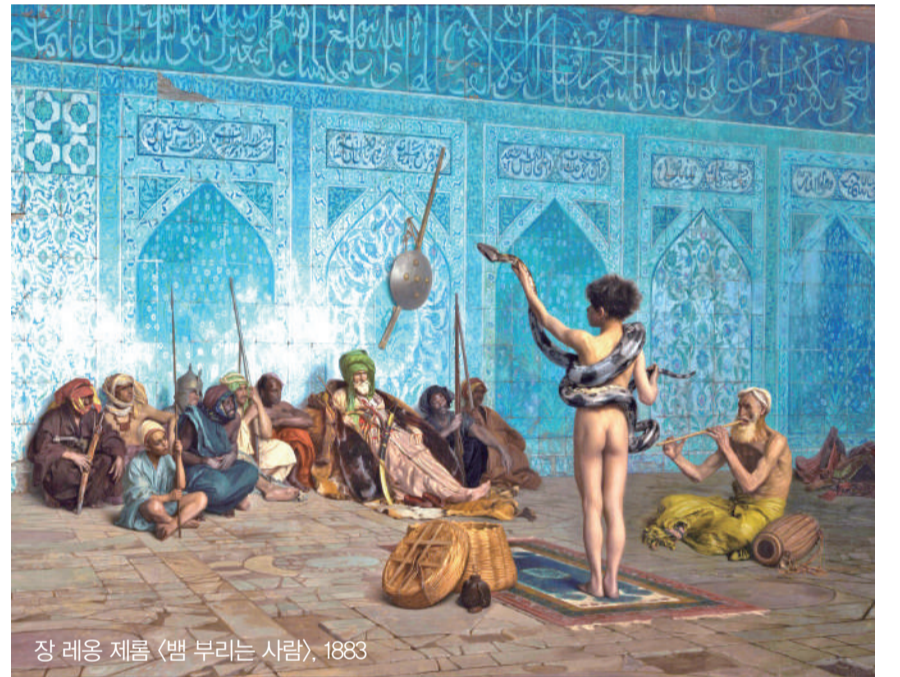
그리스 대부분의 도시는 노예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아테네의 경우 인구의 80%가 노예 신분일 정도로 자유와 평등과는 거리가 멀었다. 반면에 페르시아는 노예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스는 왜 페르시아를 격하했을까? 그리스는 전쟁의 승리로 불안했던 내부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하나의 제국으로 뭉쳐있던 페르시아와 달리, 그리스는 개별적인 도시국가로 이뤄진 연합체였다. 공공의 적이었던 페르시아를 물리치면서 도시국가들 사이에 '그리스'에 대한 소속감이 발생한 것이다. 하나가 된 그리스는 주적이었던 페르시아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오리엔트 문화를 무시하고 격하했다.

동양과 서양이 다시 크게 충돌한 것은 15세기, 오스만 제국이 중부 유럽으로 진출한 때다. 유럽 학계는 오스만 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산해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스만 제국이 외설과 향락을 즐긴다고 묘사했다. 당시 생긴 부정적인 이미지의 대표적인 예시가 하렘이다. 여러 여성이 나체로 술잔 한 명을 기다리는 모습이 유럽인의 상상 속 하렘이었다.

현실은 이와 달랐다. 오스만 제국의 국교인 이슬람교의 율법은 남녀가 사적으로 만나는 것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하렘이 생긴 이유도 율법 때문이다. 하렘은 남녀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위한 장소였다. 제국의 우두머리인 술탄조차 그곳에 쉽게 들어갈 수 없었다.

기독교를 믿는 유럽과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오스만 제국은 상극이었다. 더구나



장 레옹 제롬 (뱀 부리는 사람), 1833

유럽과 오스만 제국은 맞닿아있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충돌이 잦았다. 유럽은 오스만 제국이 이교도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그들을 혐오하고 있었다. 15세기에 이르러 오스만 제국의 가파른 성장세는 유럽인의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당시 오스만 제국은 남동부 유럽과 서남아시아를 정복할 만큼 강대국이었다. 오랜 기간 유럽 내에 쌓여온 혐오감과 공포가 오스만 제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다.

17세기 유럽은 말 그대로 중국 열풍이었다. 프랑스 선교사 덤트레플르는 주변인에게 중국에 대한 많은 양의 편지를 썼다. 그의 편지를 기반으로 작성된 보고서 속 중국은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었다. 중국인은 항상 현명하고, 자연을 숭배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가 중국을 환상 속 공간처럼 표현했다.

서양의 인식과 달리 중국은 완벽한 공간이 아니었다. 당시 중국은 명나라와 청나라의 왕조 교체 시기였다. 술탄 전쟁과 전염병으로 온 국민이 고통 받았던 것이 당시 중국의 현실이었다.

선교사가 중국을 환상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본국의 재정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함이었다. 유럽 선교사가 작성한 중국 보고서는 중국을 경험해보지 못한 유럽인에게 의해 편집·출판됐다. 선교사가 왜곡한 중국의 모습은 유럽의 학계까지 전파됐다. 진태원(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원은 "부족하고 간접적인 중국 연구는 서양인의 상상력에 의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에드워드 사이드가 분석한 것처럼 19세기는 유럽인의 오리엔탈리즘이 절정을 맞은 시대다. 당시 유럽 학계는 자신들의

문화권을 서양으로, 아프리카를 제외한 비유럽 문화권을 동양으로 구분했다. 그들의 사상 속에서 동양은 미개하고, 서양은 동양에 비해 훨씬 우월한 모습이었다.

배경에는 제국주의가 있었다. 오리엔탈리즘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됐다. 타국을 지배하려는 유럽에게 동양의 미개함은 좋은 핑계로 자리 잡았다.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오리엔탈리즘은 일반 대중들에게도 전파됐다. 김상희(한백문화재단) 연구소장은 "서양은 동양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시민에게 동양을 열등한 존재로 가르쳤다"고 설명했다.

오리엔탈리즘이 걸어진 길

기원전에 있었던 그리스-페르시아전쟁부터 19세기의 제국주의까지 서양이 동양을 왜곡한 역사는 매우 길다. 주제와 이유는 시대마다 다르지만, 왜곡의 배경에는 동양을 깎아내려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었다. 왜곡의 주체는 당위성을 활용해 대중들에게 자신들이 만들어낸 동양의 모습을 널리 전파했다. 일반 시민에게 퍼진 동양 왜곡은 보편적인 시선으로 나아갔다.

시대가 바뀌면서 동양 왜곡의 당위성이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에 왜곡된 동양의 모습은 아직도 남아있다. 특히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전파했다는 점이 서양이 만든 동양의 모습에 끈질긴 생명력을 부여했다. 영화 '물란'으로 촉발된 오리엔탈리즘 논란 역시 긴 시간 퇴적된 왜곡의 결과물이다. 22년 만에 애니메이션 영화 '물란'이 실사 영화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논란에 사로잡혀있는 것은 오리엔탈리즘의 깊은 뿌리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클로드 모네 (기모노를 입은 키이우), 1876

일상을 플레이하다, 게이미피케이션

등굣길, 학교에 도착하니 핸드폰 어플 내 걷기 마일리지가 쌓여있다.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는 매운 돈까스를 1시간 내 다 먹으면 공짜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커피 10잔으로 모은 적립 스탬프로 커피 전문점에서 무료 커피를 마신다. 전부 게이미피케이션이 활용된 상황이다. 우리는 게이미피케이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어떻게 우리 일상 속에 자리잡고 있을까?

게이미피케이션이 뭔데?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은 게임이 아닌 분야에 게임의 사고방식을 접목시키는 것을 말한다. 게임은 랭킹 혹은 리더보드를 통해 남들과의 경쟁심을 이끌어 낸다. 게임의 플레이어는 주어진 임무를 해결하면 포인트나 배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게임의 시스템은 경쟁심을 통한 재미와, 스스로 플레이하고 보상을 얻는 과정의 성취감을 준다.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의 랭킹과 리더보드, 보상 등의 요소를 활용한다. 이용자는 선의의 경쟁 속에서 재미를 느낀다. 보상을 통해 성취감과 동기를 얻기도 한다.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하면 제작자와 이용자 모두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용자는 시스템에 대한 만족과 재미, 보상 등을 얻을 수 있다. 제작자는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홍보 효과와 이용자의 충성심을 얻는다. 김정태(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는 "게이미피케이션은 비게임 영역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영역에 대한 충성도와 만족도를 높여준다"고 말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 마케팅

게이미피케이션은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자주 활용된다. 독일의 엔지니어링 회사 '지멘스(Siemens)'는 사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플랜트빌(Plantville)이란 게임을 만들었다. 사원은 플랜트빌을 통해 실제 지멘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사업 분야가 아닌 업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지멘스는 플랜트빌을 일반인도

플레이할 수 있도록 배포해 기업 홍보 마케팅에도 활용했다. 또 지멘스는 플랜트빌의 플레이 점수를 일정 기록 이상으로 달성해야만 발전 업무 부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원과 지원자는 플랜트빌을 통해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지멘스는 회사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뛰어난 신입사원을 동시에 얻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광고 마케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 미국의 스포츠 용품 제조 회사 '리복(Reebok)'은 스포츠 분야의 게이미피케이션을 보여주는 마케팅을 실시했다. 현대인이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리복은 도심 한가운데에 속력 측정계를 설치했다. 측정계 아래에는 '당신은 운동을 갖기에 충분히 빠릅니까?'라는 문구가 적혀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했다. 신기하게 보던 사람들은 측정기를 향해 하나 둘 뛰기 시작했다. 리복은 시속 17KM 이상으로 달린 사람에게 실제 운동화를 보상으로 지급했다. 현대인의 운동부족이란 문제의식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 문제해결 시 제공되는 보상 등을 통해 홍보 효과를 높였다. 김 교수는 "기업의 마케팅에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했을 때 얻게 되는 홍보 효과는 부수적인 효과"라며 "게이미피케이션의 진정한 가치는 그 분야가 갖고 있는 문제를 보다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이라고 설명했다.

교실 안에서도 게이미피케이션을

학생들의 수업에서도 게이미피케이션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기존의 교육 방식은 교수자를 중심으로 하는 주입식 교육이 대부분이었다. 교육 게이미피케이션은 학생의 수업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쉬운 게임의 특성을 이용해 수업에 재미와 호기심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정보보호학과는 정보보호라는 생소한 개념을 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정보보호 캠페인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리복의 광고 마케팅. 시속 17KM 이상으로 뛰면 아크릴 상자 내의 신발을 보상으로 제공했다.

게이미피케이션, 일상에서 재미와 성취감 얻을 수 있어

아직까지 '게임' 요소 적용이란 인식 때문에 발전 더뎠다

게임을 문화예술 범주에 포함시키는 등 적극적 대책 필요해

활동을 하고 있다. 학생은 사이퍼 디스크(Cipher Disk)와 보드게임을 만들며 정보보호에 대한 기초지식을 알 수 있다. 김 교수는 "게이미피

케이션을 수업에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실제 게임을 수업에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교육 게이미피케이션이



▲엔지니어링 회사 지멘스의 실제 사업을 구현한 게임 '플랜트빌'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 캠페인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보드게임. 해커의 침입과 방어 개념을 쉽게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 게이미피케이션은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인식이 좋지 않은 편이다. 교육의 적이라 불리는 '게임'의 요소를 활용한 것이 그 이유다. 김 교수는 "게임의 인식 때문에 게이미피케이션을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며 "교육 게이미피케이션의 인식개선과 지원을 위해선 게임을 법적으로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소회와실 기능을 통한 팀 활동 같은 간단한

교육 게이미피케이션도 수업을 다각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마케팅 등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문제를 재미있게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패러다임 또한 변화시키고 있다. 김 교수는 "게이미피케이션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좋게 해 정보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며 "게이미피케이션이 우리의 삶을 새롭고 재미있게 만들어 주는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게이미피케이션의 발전을 기대했다.

김선우 기자 rtdjrtf@naver.com

2021학년도 전기 한성대학교 대학원 신입생·편입생 모집

시대적 패러다임을 세웁니다.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첫걸음!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가 되고, 더 나아가 자신의 분야에서 넓고 깊은 식견을 지닌 지식인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성대학교 대학원의 시대적 패러다임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HSU 한성대학교
HANSUNG UNIVERSITY

일반대학원(주간)				특수대학원(야간)						
대학원	학위구분	모집계열	모집학과	대학원	학위구분	모집계열	모집학과			
일반대학원	박사	인문계	한국어문학과	경영대학원	석사	사회계	경영학과			
			영어영문학과(모집없음)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사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사회계	문화정보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미용예술학과						
			행정학과	민원행정컨설팅학과(모집없음)						
	공학계	무역학과	경제학과	예술대학원	석사	예·체능계	부티예술학과			
		경제·부동산학과	국방학과대학원				석사	사회계	안보정책학과	
		산업경영공학과	국방시스템학과						국방M&S, 국방정보시스템	
	정보컴퓨터공학과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석사	예·체능계	기계시스템공학과(모집없음)	미디어디자인학과	부동산대학원	석사	사회계	부동산금융·자산관리전공, 부동산도시개발·관리전공, 한중부동산전공, 스마트부동산·프롤테크전공		
			학과간 협동과정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교육대학원	석사	인문계
한국어문학과			사학과	교육정책&리더십전공, 상담심리전공, 유아교육전공						
영미문화학과(모집없음)		영미문화학과(모집없음)	미래융합컨설팅학과	교육정책&리더십전공, 상담심리전공, 유아교육전공						
문화정보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국재무영경제학과(영이트랙, 모집없음)						
행정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산업경영공학과						
경제학과	경제학과	경제학과	컴퓨터공학과							
국재무영경제학과(영이트랙, 모집없음)	국재무영경제학과(영이트랙, 모집없음)	국재무영경제학과(영이트랙, 모집없음)	전자정보공학과							
산림경영학과	산림경영학과	산림경영학과	IT융합공학과							
국립자연사학과	국립자연사학과	국립자연사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모집없음)							
국립자연사학과	국립자연사학과	국립자연사학과	회화과							
국립자연사학과	국립자연사학과	국립자연사학과	의류패션산업학과							
국립자연사학과	국립자연사학과	국립자연사학과	무용학과							
국립자연사학과	국립자연사학과	국립자연사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국립자연사학과	국립자연사학과	국립자연사학과	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국립자연사학과	국립자연사학과	국립자연사학과	국제이주협력학과							

원서접수 및 발표 |

- 원서접수기간 : 2020. 10. 26.(월) 10:00 ~ 11. 6.(금) 17:00
- 접수방법 : [대학원홈페이지-입학안내-모집요강]에서 모집요강 확인 후 유웨이 어플리케이션(http://www.uwayapply.com)을 통해 인터넷접수
- 온라인 면접고사 : 2020. 11. 21.(토) 10:00 학과(전공) 지원인원에 따라 면접고사 일정 조정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2020. 12. 10.(목) 오후 대학원홈페이지 참고
- 전화문의 : (02)760-4271(일반대학원 교학팀)
- 홈페이지 : http://gs.hansung.ac.kr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또는 전화문의 바랍니다.

한성대학교 대학원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선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상선로 1002호)

청년 정치란 청년의 목소리다

<편집자주>

제21대 총선에 당선된 40대 미만 정치인 수는 13명이다. 전체 국회의원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지만 제20대 총선과 비교하면 무려 10명이나 늘어났다. 제21대 총선은 만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한 첫 선거이기도 했다.

늘어난 젊은 정치인 수와 낮아진 선거 연령으로 '청년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청년 정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거나 고민해본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청년 정치인은 청년 정치를 어떻게 정의할까? 본지는 총 5번의 인터뷰를 기획했다.

세 번째로 만난 정치인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이다.

주진술 기자 twoxo@naver.com



Q. 청년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지금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답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다른 누구보다 청년이 제일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디지털 세대라고 불려왔다.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사회는 청년에게 당연하다.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해졌다. 넘쳐나는 정보 가운데 원하는 정보를 가장 쉽고 빠르게 찾아낸다. 변화에 익숙한 사람이 변화하는 시대에 어울리는 답을 내놓기는 어렵지 않다.

Q. 청년 정치는 청년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A.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나 청년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기성세대는 지금 청년의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았다. 얼마나 힘든지, 왜 힘든지를 모른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청년이 나서서 기성세대가 잘 알지 못하는 청년의 이야기와 현재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

Q. 기성세대는 정치의 전문가다. 그럼에도 청년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A. 정치에는 정해진 답이 없다.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에 따라 답은 변한다. 과거에는 맞다고 생각했던 답이 지금은 틀린 답일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 30년 동안 개정된 적이 없다. 30년 전에야 임대차 계약 기간 2년이 적당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평생 임대 주택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2년은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의 목소리가 답이 될 수 있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존의 답을 강요하는 어른에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Q.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 정치는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A.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청년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전달되지 않고, 기성세대가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정치권에 청년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기성세대는 어쩌다 겨우 정치권에 들어온 청년 정치인의 성장을 막는다. 단순히 젊다는 이유로 말이다. 기성세대는 청년을 무시하고 정치를 자신만의 판으로 만들었다. 덕분에 정치를 혐오하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시대에 맞는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청년 정치가 필수적이다.

Q. 청년의 정치 혐오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A. 기성세대의 편 가르기 때문에 청년의 정치 혐오가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정치인의 성향을 보수, 진보로

Q. 청년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A. 다양한 경험을 쌓은 청년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다양한 경험을 하면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로는 얻을 수 없는 능력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청년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사회에는 경험이 없고 공부만 있다. 청년이 경험을 쌓는다면 청년 정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Q. 청년 정치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궁금하다.

A. 취업 분야다. 생활과 밀접한 취업이 청년에게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학 졸업장만으로 취업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청년은 취업 하나만 바라보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 문제는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한다는 것이다. 지금 사회는 과도한 스펙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과도한 스펙이 아닌 다양한 경험이다. 다양한 경험은 청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줄 수 있다.

Q. 정치에 참여하고픈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A. 정치는 생활이다. 출·퇴근길에서 인터넷 정치 기사에 댓글을 달고, 전화로 정치인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정치다. 정치는 아무리 바빠도 해야 하는 일이자 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온라인도 좋고 오프라인도 좋다. 자신의 목소리를 정치권으로 전달할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하기를 바란다.

Q.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A. 당장 사회에 필요한 답을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세대의 이야기를 정치권에 전달하고 싶다. 기존 정치의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고민하는 일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게 청년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에는
현실을 이해하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전용기

2016
경기도대학생협의회 의장

2017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
부위원장

2017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기획위원

2018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2020
제21대 국회의원 당선

2020
제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나누는 게 굉장히 쉬웠다. 그들이 태어난 지역만으로도 성향이 나뉘었다. 그러나 지금 청년은 이분법적으로 나뉘지 않는다. 청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다. 청년 스스로 판단하고 합리적인 답을 찾아나간다. 그럼에도 기성세대는 청년의 편을 가르려고 한다. 그들에게 좌우로 나뉜 정치인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생각한 답이 남의 기준에 의해 강제적으로 맞춰지니 청년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있는 그대로의 청년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 삼 학 송 ·

어떤 생명을 위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이래로 66년 만에, 그리고 2012년 현재의 낙태죄 합헌 판결 후 7년 만의 일이었다. 헌재의 결정은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서 헌법적 권리임을 확인해줬다.

국회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발의해야 하지만 아직 발의된 것은 없다. 최근에는 정부가 낙태죄 존치를 골자로 한 입법예고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낙태죄 조항을 유지시킨 채, 임신 14주 이내와 강간 피해 외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임신중지 허용 사유로 추가했다. 또한 14주에서 24주 내 임신한 사람은 임신 중지를 위해 숙려기간과 상담의무제도를 거치는 안을 신설했다. 낙태죄 폐지 대신 처벌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항이라고 한다. 낙태죄 존치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낫을 당시 단순위헌의 견을 낸 재판관 3명은 ‘낙태죄 조항에 의해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이 실질적으로 달성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실제로 낙태죄 처벌은 임신중단 건수에 비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조항은 실효성이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8년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보면 2008년 전체 24만1411건의 임신중단 중 4건, 2009년 18만7958건 중 4건, 2010년 16만8738건 중 7건만 낙태죄로 기소됐다. 이마저도 대부분 남자친구 혹은 남편, 남성 측 가족이 여성을 협박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었다.

정말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하고 싶다면 처벌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

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성에 관한 이야기를 금기시하는 풍조 탓에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고작 15시간, 초·중·고등학교 평균 5시간뿐이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피임 방법, 인권, 책임감 학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평등하고 안전한 성적 권리를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실효성 없는 낙태죄 조항 때문에 많은 여성이 죽어간다. 매년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로 인해 전 세계 850만여 명의 여성이 합병증을 겪고 5만여 명이 사망한다. 안전한 임신중지만 가능하다면 죽지 않아도 될 여성이다. 루마니아는 지난 1966년 낙태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1983년 모성사망비(임신중이거나 출산 뒤 7주 이내 사망하는 여성의 숫자)가 금지 전보다 7배 높아졌다. 이 기간 10만 명의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989년 낙태금지법이 폐지되자 한 해 만에 모성사망률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현재도 역시 “수많은 시대와 사회에서 여성들은 형벌의 위하를 무릅쓰고 자신의 건강 또는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원치 않은 임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자기 낙태를 감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며 여성의 건강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게 했음을 인정했다.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등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재는 이미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줬다. 대대입법 시한이 불과 석달 채 남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또 다른 논쟁의 시작이어서 안 된다.

박희연 편집국장



이제는 시작해야 할 때

지난 8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가 사학비리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전대넷은 종합감사의 전면실시가 보편화된 사학비리 해결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사립대 중 40%는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 올해 개교 이래 처음으로 종합감사를 받은 홍익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는 각각 41건, 86건, 36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최성훈 기자

기자수첩

지난 호 신문에 실린 ‘기약 없는 철장 속 기다림’ 기사를 취재하기 위해 기자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방문했다. 비좁은 견사를 통해 확인한 학대의 흔적은 너무나 참혹했다. 더 참혹한 것은 이 비극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죄 없는 동물이 보호소를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동물 학대를 막아줘야 할 동물보호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 학대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내리고 있다. 분명 처벌은 존재하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경찰청이 제공한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2년간 구속된 경우는 단 2건밖에 없었다.

정부는 2021년부터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 보호

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처벌의 수위는 올라갔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생긴다. 현재 시행하는 제도 역시 2018년에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이전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을 가했다. 과연 처벌을 강화한 후에는 동물 학대 건수가 줄어들었을까?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2017년에 459명, 2018년에는 592명으로 나타났다.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동물 학대 사례가 더 늘어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처벌의 수위가 아니라 실효성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응은 징역형과 벌금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태료 수준으로 처벌했던 지난 날에 비하면 나아진 것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제도나 조항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국에서는 동물 학대를 저지른 사람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동물 소유권을 박탈하는 등 다양한 처벌 조항을 설치하고 있다. 미국 테네시 주에서는 동물 학대범의 얼굴과 이름, 생년월일 등을 공개하고 있다. 캐나다 동물 학대범에게 2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처벌을 내리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각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동물 보호의 사각지대다. 우리는 동물 학대가 명백히 범죄 행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유기동물 보호소에 있었던 학대의 흔적이 이제는 사라지길 바란다.

조정은 기자

의화정

독서의 미식가와 대식가

여기 잘 구워진 소고기가 있다고 하자. 곁에는 적당히 익어서 그릴 자국도 있고, 한 입 베어 물면 입안에 육즙이 번질 것 같은 잘 구워진 고기다. 한 사람은 고기 한 점 먹고, 눈을 감았다 떴다 해가며 고기의 질감과 구워진 정도를 칭찬하면서 음식을 음미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다소 게걸스럽게 고기를 입안에 밀어 넣으며 우걱우걱 양껏 목구멍으로 넘기고 있다. 식사가 끝났을 때, 누가 잘 먹은 것인가? 미식가인가 대식가인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독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독서가는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잘 읽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대식가보다는 미식가가 쪽이다. 독서와 관련해 잘 읽는 방법에 대한 책이 수없이 많다.

그러나 책의 맛을 잘 알기 위해서는 많이 읽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평생을 그릴 수는 없다고 해도, 그런 시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미식가는 분명히 어느 한 시절 대식가였을 것이다. 그것도 한 종류의 음식만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양하게 많이 먹는 대식가였을 것이다. 많이 읽는 것보다 잘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독서가도 분명히 어느 한 시절 대식가처럼 많이 읽어왔던 사람이다.

진정한 미식가가 똑같은 음식에서도 남다른 느끼지 못하는 미감을 느끼는 것처럼, 진정한 독서가는 남들이 읽지 못한 것을 읽는다. 진정한 미식가(독서가)는 평생 먹어본 적이 없는 낯선 음식(책)을 먹어도 맛을 감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대표적인 독서가 중의 한 사람인 장석주 시인은 자신의 저서 『내가 읽은 책이 곧 나의 우주다』에서 “영혼의 갈망이 채워질 때까지 정신없이 허겁지겁 읽어야 할 책도 있는 법”이라고 적고 있다. 미식가에 이르는 길에 대식가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예들려 말해주고 있다. 대식가의 ‘단계’ 혹은 ‘시기’가 대학시절이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볼 것, 재미있는 것이 천지인 지금, 진부하게 독서냐?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시라. 더군다나 웬만하면 집에 앉전히 있으라고 하는 코로나 시대 이지 않은가.

강호정(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

낙산에 올라

선선한 바람과 일교차가 큰 날씨는 우리에게 가을이 왔음을 알려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우리의 생활을 뒤흔 후 벌써 3번의 계절이 바뀌었고 우리의 생활도 변했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별로 시행되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거리를 두었고,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들었다. 우리는 코로나 19 이전의 당연하게 누리던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었음을, 평범하게 누리던 일상이 소중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되도록 외출과 모임을 삼가세요.” 코로나 19 이후 뉴스에서 매번 등장하는 단골 멘트다. 집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사이,

마음에 귀 기울일 때

사회 혹은 관계에서 자신을 고립시키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생겨났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우울함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블루는 청년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 국내 자살 예방 상담 건수는 작년 대비 78% 이상 증가했고, 20대와 30대의 우울증 진료 건수는 20%, 고의적 자해 발생 수는 80% 이상 증가했다. 장창현 전문의는 “2030세대가 코로나19 이후 취업 어려움과 줄어든 대인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며 “혼자 사는 인구가 많은 청년층이 마음 건강을 챙기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코로나 레드’를 경험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레드

19에 따른 스트레스 과부하, 경제적 위험 등으로 우울감이 짜증과 분노로 변화한 심리 상태를 뜻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정되어 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무산되고 손해를 보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분노를 야기하는 것이다.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고의로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람의 행동도 코로나 레드

의 심리 상태와 관련이 있다.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와 같은 물리적인 예방 방안이 나온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퍼지는 심리적인 감염을 예방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돌보며 지혜롭게 코로나19에 대처하자.

이정현(인문 3)

한성대신문 오피니언면은 학내구성원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한성대신문〉은 교수님의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면에 실을 동정이 있으면 한성대신문사(내선 4186)로 문의바랍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그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그에게 묻는 것보다 그가 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던가. 종이에 적힌 자료보다 한 번의 경험이 더욱 현실적이다. 나를 그로 바꾸기 위해 신문사 밖으로 향한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생생한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부터 학교 방문자를 보호하기 위해 힘쓰는 학내 구성원이 겪는 어려움을 알아봤다. 학교 정문 통제, 상상관 출입 관리, 교내 시설 방역까지. 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학내 구성원이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작업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출입 통제 및 관리, 방역 작업을 해보았다.

김선우 기자 rtdjrtf@naver.com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코로나19를 대하는 그들의 자세

이어폰에 가려진 노란 점퍼

오전 8시 45분. 학교 정문에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상황실에 도착한다. 한 근로 학생이 노란색 점퍼를 건네준다. 재난 상황 때 공무원이 입는 노란색 민방위복과 유사하다. 점퍼를 입은 후, 정문 출입구를 통제하고 있는 캠퍼스 직원 2명 옆으로 향한다.

정문에 '성북02' 마을버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마을버스가 정차하고 대략 20명 정도가 버스 앞문과 뒷문으로 내린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학생이 학생증을 보여주지 않고 지나간다. 그를 따라가 학생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냥 가던 길을 간다. 그의 어깨를 툭툭 치니 그제야 귀에 꽂힌 에어팟을 빼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곧바로 학생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니 미간을 찌푸린다. 뒤돌아보니 캠퍼스 직원 2명은 여전히 실 틈 없이 출입증 확인을 하고 있다.

오전 9시 41분. 두 학생이 버스에서 내려 함께 걸어온다. 한 학생은 학생증을 제시하고 정문 출입을 통과한다. 하지만 다른 학생은 모바일ID 어플을 사용하는 것이 서투른지 헤매고 있다. 먼저 통과해 기다리고 있던 학생이 그에게 다가가 어플을 실행시키는 것을 도와준다.

다음 버스를 기다리며 직원과 정문 출입 통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대부분의 학내 구성원이 귀에 이어폰을 낀 채로 지나가 출입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특히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물려오는 시간에는 더욱 힘들습니다." 오전 8시 53분부터 9시 53분까지 1시간 동안 지나간 버스는 총 20대였다.

손에서 놓지 못하는 체온계

오전 9시 55분. 건물 통제 근무를 위해 상상관 1층으로 향한다. 대책 상황실에서 받은 노란색 어깨띠를 착용한 후, 학생장학팀에서 받은 건물 통제 근무 수칙 안내문을 꺼내든다. 우선 출입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해야 한다. 근무를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발열체크를 진행하기 전 안내 멘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내 멘트 없이 발열체크를 진행한다면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출입증을 리더기에 태그하는 방법을 안내한 후 감사 인사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오전 10시 7분. 긴급재난문자 알림이 울리는 것과 동시에 출입 관리를 시작한다. 3미터 길이의 책상 위에는 문진확인 스티커, 피부적외선체온계, 손소독제, 노트북이 보인다. 누군가 오기 전, 체온계 화면에 Lo표시가 뜨도록 책상을 향해 버튼을 누르고 기다린다.

한 학생이 건물 안으로 들어온다.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발열체크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체온을 측정한다. 그 순간 체온계 화면에 노란색 불이 깜빡거린다. 그러자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근로 학생이 다가온다. 그는 익숙한 듯 책상 아래에 있던 쇼퍼백에서 다른 체온계를 꺼내면서 이야기한다. "가끔 체온계가 오작동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체온계를 비치하고 있어요." 쇼퍼백 안에는 체온계 박스 3개가 보인다.



“땀에 젖은 방역복, 고글, 마스크...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체온계를 건네받고 발열체크를 다시 진행한다. "정상입니다. 문진확인 스티커를 부착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스티커를 부착한다.

마지막으로 출입증을 리더기에 태그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그가 바지 뒷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모바일 학생증을 리더기에 태그한다. 노트북 화면에 "승인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오전 10시 56분. 출입구 앞에는 대략 6명 정도가 있다. 한 줄로 서서 문진확인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진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오른손으로는 체온계 버튼을 누르고 눈은 계속 노트북 화면을 응시한다. 발열체크와 출입증 확인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다.

오후 12시 50분. 근무 마감까지 10분이 남은 시간이다. 다음 근무하는 팀을 위해 다 쓴 스티커는 박스에 버리고 체온계는 다시 책상 위에 올려둔다.

오후 1시. 대략 3시간 정도의 근무를 마치고 상상관을 빠져나간다. 의자에 앉으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어온다.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는 걸 반복해 다리에 힘이 풀린다.

땀으로 가득 찬 방역복

이번엔 방역 작업 준비를 위해 시설지원팀으로 향한다. 본교는 화요일, 목요일 오후 6시에 교내 시설 전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한 직원이 하얀색 방역복을 건네준다. 방역복은 호흡기나 신체에 해로운 소독액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방역복을 입은 후, 학교 정문 앞으로 이동한다. 학교 정문 앞에는 검은색 방역복을 입은 직원 8명이 대기하고 있다. 그들 중 한 명이 고글, 장갑, 마스크를 챙겨준다.

오후 6시. 해가 지고 선선한 날씨가지만, 방역복에 고글까지 착용하니 습슬 더워지기 시작한다. 트럭 한 대가

정문 앞에 도착해 시동을 멈춘다. 트럭 뒤에 실린 소독기가 보인다. 소독기에는 소독액이 16L가 들어간다. 소독기의 앞부분은 좁고 길며 뒷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다. 얼핏 보면 탁상용 청소기와 비슷하다. 소독기에는 작업을 하다가 소독기를 떨어트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어깨끈도 달려 있다.

소독기를 오른쪽 어깨에 메고 체육관으로 향한다. 넓은 체육관을 전체적으로 소독하기 위해 직원 8명과 함께 체육관 끝까지 걸어가 일렬로 선다. 그 후에 한 직원이 방역 소독기를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는 상태에서 작동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한다. "오른손으로 소독기 뒷부분에 달린 손잡이를 잡고 왼손으로는 소독기 앞부분을 잡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 손잡이 위에 있는 슬라이드 형식의 버튼을 끝까지 밀어 올리면 많은 소독액이 나오며 다시 아래로 내리면 작동이 멈추는 방식으로 분사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소독기의 손잡이를 잡은 후에 버튼을 끝까지 올린다. 양옆에 있는 직원과 함께 소독기를 좌우로 흔들며 체육관 입구까지 뒤로 걸어간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직원은 체육관 소등 후 소독액을 뿌린다.

체육관 방역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온다. 장소별로 직원 4명씩 나누서 작업을 진행하기로 한다.

한 직원이 바지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학식당 문을 개방한다. 직원 4명과 함께 학식당으로 들어가 시설을 꼼꼼히 소독하기 위해 테이블 의자를 10cm정도 빼낸다. 소독기의 앞부분이 위로 향하게 들어 올린 후 소독액을 분사해야 한다. 책상 위에 설치된 가림막에 소독액을 직접적으로 뿌리면 자국이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대략 20분이 흘러 학식당 방역을 마친다.

학식당과 멀지 않은 학술정보관으로 향한다. 학술정보관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 도착한다. 6층에서부터 각 층마다 소독을 진행한다. 의자를 뒤로 뺀 후 의자의 앉는 부분, 손잡이 그리고 책상에 구석구석 소독액을 뿌린다.

각 층마다 설치돼 있는 화장실도 방역해야 한다. 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다. 다섯 발자국 정도 걸어가 소독기를 들고 변기, 바닥 그리고 문 손잡이에 소독액을 뿌린다. 화장실에서 나가기 전 여러 사람이 접촉하는 세면대, 출입문 손잡이에 집중적으로 소독액을 분사한다.

방역 작업을 1시간 동안 진행하니 오른쪽 어깨가 빠근하고 온몸이 땀 범벅이다. 마스크와 고글을 착용해 시야가 뿌옇고 숨도 턱턱 막힌다. 방역 작업이 끝남과 동시에 고글과 마스크로 귀 뒤쪽이 지끈거리기 시작한다.

학술정보관 방역을 마친 후, 건물을 나오면서 직원이 말을 건넨다. "직접 해보니까 어때요? 여름에는 날씨도 더운데 방역복에 고글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그는 다시 상상관 방향으로 뛰어간다.

1시간 동안 10kg의 소독기를 들고 작업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근무 시간은 2시간 30분. 앞으로 1시간 30분을 더 근무해야 하는 셈이다.

